

ESG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여

ESG 논의

전 세계적으로 ESG 열풍이 분다. ESG는 잘 알려진 것처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약자로 기업의 비(非)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다. 그동안 재무 성과와 이윤만을 추구하던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그림1]과 같이 환경, 사회·인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이지만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환경·인권 문제를 발생시키는 기존의 주주, 이익 중심의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ESG를 투자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투자사·연금이 늘어나고, 선진국 중심의 ESG 규제 강화, 기업의 목적과 가치에 민감한 MZ세대 소비자들의 요구도 ESG 시대를 앞당겼다.

인도 보팔의 유독 가스 누출 사건, 알래스카의 엑손 발데스호 원유 유출 사건 등 1980년대부터 기업발 대참사가 이어지면서 기업 경영이 환경과 사회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관련 글로벌 규약들이 만들어지고, 기업들이 이에 부응하여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발간하고, 윤리경영·지속가능경영·사회적 책임(CSR)의 형태로 지속해 왔다. 오늘날의 ESG 경영은 이러한 경영활동이 진화되고, 규범화·제도화된 것으로, 이제 기업의 ESG경영은 선택사항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필수적인 경영방식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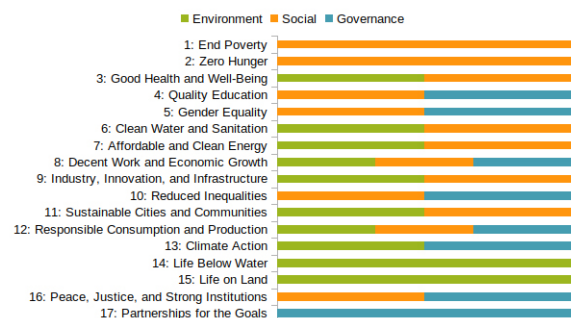
ESG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관성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지속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등장한 것은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제시되면서 부터다. 그 무렵 1989년 알래스카의 엑손 발데스호 원유 유출 사건이 큰 이슈가 되면서 기업 경영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공개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발데즈 원칙’이 발표됐다. 여기에 UNEP이 후원하면서 ESG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발족했다. 즉 ESG는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아닌 국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노력과 맥을 함께 해 왔다.

[그림 1] ESG 소개



[그림 2]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ESG 3가지 요소의 연관성



이후 2015년 유엔과 193개국 정부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채택되고서부터 지속가능성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됐다. SDGs는 인류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ESG를 실천하는 기업에서 SDGs를 경영전략으로 포함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ESG의 3가지 요소는 SDGs의 17개 목표와 연관성이 높다. 더욱이 SDGs의 목표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ESG 활동 및 투자의 목표를 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기업 사례

지속가능성의 대표 선두기업인 유니레버는 지속가능경영목표를 설정할 때 SDGs 목표를 지표에 활용하고 있다. ‘Unilever Sustainable Living Plan’이라는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유니레버의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상세히 알리는데, 각각 SDGs 목표와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유니레버의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목표인 ‘환경 영향 절반으로 줄이기’를 예로 들면, 상품 제작과 사용에 필요한 환경 발자국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물 관리, 폐기물 처리, 지속가능한 소싱 등을 실천하며 이는 SDGs 목표 7, 12, 13, 14, 16, 17 과 연관됨을 보여준다. 동시에 ESG의 정보 공시를 위한 GRI 보고서에도 환경부문 내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SDGs의 해당 목표 아이콘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네슬레, 나이키, 펩시, 3M, 존슨앤존슨과 같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에 SDGs의 몇 번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있는지 명시하며, 이를 ESG 보고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LGT Capital Partners에서 진행한 투자자 인터뷰 보고서에 따르면, “ESG 요소를 SDGs 목표와 연결하면 기업의 지속가능한 투자와 경영이 좀 더 성과지향적이 되고, 그 영향력이 측정가능해진다”고 밝혔다.

KOICA에의 시사점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발 협력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NGO·교육기관·연구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그 중 ESG 경영 도입으로 기업과 SDGs와의 연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KOICA는 향후 새로운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서 ESG 경영 기업에 주목

하고, 연계 및 협력하는 방식으로의 사업다각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SDGs 달성을 위한 기업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정부, 민간, 개인의 모든 주체가 협력하는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KOICA ODA 연구센터

[참고문헌]

- SustainoMetric. ESG to SDGs: Connected Paths to a Sustainable Future
- Wilburn, Kathleen. 2020. ESG Reporting Using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Journal of Strategic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Vol. 15. Iss. 2. 109-128
- Credit Suisse. From ESG to the SDGs: The shift from process and policies to delivering a positive contribution
- LGT Capital Partners. 2019. ESG to SDGs: the road ahead
- 리베카 헨더슨. 2021. 자본주의 대전환. 어크로스
- 그림1. 유니드컨설팅
- 그림2. SustainoMetric. ESG to SDGs: Connected Paths to a Sustainable Future